

암발생 전국 지도 최초 발표

지역 간 암발생률 2~15배 차이

우리나라 시군구별 암발생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지역 간 암발생률은 암종에 따라 2~1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15년간의 수치를 분석한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최초로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감상선암은 전남, 위암은 충북·경북·전북의 경계지역, 대장암은 대전과 충청, 폐암은 전북·전남·경북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유방암 및 전립선암은 서울 강남·서초 및 경기 분당구, 간암은 경북 울릉군과 경남·전남의 남부지역, 낭낭 및 기타암은 낙동강 인근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시군구별 암종에 따른 암발생률은 적개는 2배, 많개는 15배까지 차이났다. 남녀 모두에서 감상선암의 지역 간 격차가 가장 커졌으며, 반대로 위암, 대장암, 폐암의 격차는 작았다.

특히 감상선암과 대장암 발생률은 전 지역에서 남녀 모두 증가했다.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및 간암 발생률은 감소하고, 전립선암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자는 유방암 및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감상선암=여수를 비롯한 전남 지역 대부분, 서울·대전·대구 등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했다. 대도시에서 검진률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암=충북·경북·전북의 경계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대장암=대전,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았지만, 이는 충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장암 검진률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폐암=남자의 경우 전북 순창군, 전남 화순군,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지역 간 변이가 매우 적었다. 폐암은 지역 간 현재 흡연율과 끊임없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유방암=여자의 경우 서울 강남·서초, 경기 분당구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의료이용률과 전립선암 검진률이 높아 전립선암 발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담낭 및 기타암=낙동강 인근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한편 시군구별 암발생통계는 1999년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 발표됐으며, 올해 9월 수립·발표한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통계는 총 24개 암종을 대상으로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해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시작된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묶어 분석했다.

시군구별 암발생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누구든지 열람·분석·연구할 수 있다. 정부는 시군구별 암발생통계를 지역별 암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제진 기자 hjo@koreanurse.or.kr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29개 병원 B형간염 항원 항체 조사'(2009년)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은 경남(4.5%), 전남(5.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C형간염 항체유병률은 부산·경남·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경북 울릉군에서 간암 발생률이 높은 현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전립선암=서울 강남·서초, 경기 분당구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의료이용률과 전립선암 검진률이 높아 전립선암 발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담낭 및 기타암=낙동강 인근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한편 시군구별 암발생통계는 1999년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 발표됐으며, 올해 9월 수립·발표한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통계는 총 24개 암종을 대상으로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해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시작된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묶어 분석했다.

시군구별 암발생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누구든지 열람·분석·연구할 수 있다. 정부는 시군구별 암발생통계를 지역별 암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제진 기자 hjo@koreanurse.or.kr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

국제한인간호재단 김모임 학술포럼

국제한인간호재단(GKNF) : 이사장·김의숙, 회장·이현경)이 김모임 학술포럼을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간호의 역할' 주제로 12월 2일 개최했다. 연세대 간호대학 김모임간호학연구소에서 후원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2000~2015년)를 잇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개발목표로, 2015년 9월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됐으며, 2016~2030년 시행된다.

최재욱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주제특강에서 "올해는 SDGs



가 시행되는 첫 해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사회 전 분야에서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DGs 셋째 목표인 '건강과 웰빙'을 포함해 여러 세부목표가 보건 의료와 관련돼 있다"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이 SDGs에 관심을 갖고 이행에 적극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개편

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영순)은 산업현장 안전보건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위기탈출 안전보건'을 개편했다.

이번 앱 개편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기존 공단에서 제작한 12종의 앱을 통합한 것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증대재해 속보 △재해사례 △외국인근로자 안전을 위한 다국어 회화 △응급조치 △남씨변화에 따른 사고위험지수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심리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통해 손쉽게 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주제진 기자 hjo@

질본, 모바일 국민소통망 가동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기석)는 위기소통 강화를 위해 모바일 중심의 카카오 국민소통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질병예방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망을 통해 시기 및 상황별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병원 홍보협회 등과 위기소통 연결망을 구축해 모바일을 통한 각종 감염병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보건소 등 지자체와도 유사시에 대비한 모바일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진 기자 hjo@

여협, 여성 위한 교육실 오픈

'여성(女聲)－여성의 목소리'로 이름을 붙였다.

5080 여성 인력 활성화를 위한 모범 사례 개발 및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발굴을 위한 교육 공간이 새롭게 생겼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최금숙)는 '여성(女聲)－여성의 목소리' 교육실 오픈식을 12월 2일 개최했다.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 복지재단이 여성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후원하는 공간문화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아 여협 회관 1층에 위치한 회의실을 교육실로 리모델링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뜻으로

최수정 기자 sjchoi@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개시판

제1회 군 여성건강 포럼

국군간호사관학교(교장·윤원숙 장군) 군건강정책연구소는 제1회 군 여성건강 포럼을 '건강 여군(女軍), 미래 강군(強軍)' 주제로 12월 21일 오전 9시30분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개최한다. '임상에서 바라본 군 여성건강'·'건강여군, 대한민국 지키다'·'대한민국 여군의 건강 실태 조사'·'여군 의료서비스 실태와 발전방안'·'군 여성 정책 현황과 과제' 등 주제발표, 군 관계자 및 군내 여성근무자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042)878-4579.

최수정 기자 sjchoi@

5080 여성 인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실 오픈

'여성(女聲)－여성의 목소리'로 이름을 붙였다.

5080 여성 인력 활성화를 위한 모범 사례 개발 및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발굴을 위한 교육 공간이 새롭게 생겼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최금숙)는 '여성(女聲)－여성의 목소리' 교육실 오픈식을 12월 2일 개최했다.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 복지재단이 여성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후원하는 공간문화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아 여협 회관 1층에 위치한 회의실을 교육실로 리모델링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뜻으로

최수정 기자 sjchoi@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2016년 면허신고 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2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3년 면허 취득자
- 2013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면허신고 기간: 2016. 1. 1~12. 31

*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 2016년 신규 면허자의 경우 2019년에 면허 최종신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해인 2016년에는 면허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면허신고 화면에 면허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신규 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 이수 대신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KNA 면허신고센터

- 직접 찾기(lic.koreanurse.or.kr)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클릭
- 콜센터 ☎ 1644-1755

POINT
꼭! 사용하세요.

2017년부터 소멸예정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포인트 자동 소멸예정 안내

2014년도분 회원복지포인트가 2017.1.1부터 순차적으로 소멸예정입니다. 포인트 미사용 회원분들은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일자 전에 포인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Nurselife | www.nurselife.or.kr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간호사신문 (02)2260-2571

서울시 종로구 동호로 314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충청남도 (041) 569-6348

전라북도 (063) 255-3390

전라남도 (061) 277-2202

경상북도 (054) 743-2721

경상남도 (055) 262-6006

제주도 (064) 747-3811

군 (042) 878-4580

경기도 (031) 263-6417

경원도 (031) 750-5980

부산시 (051) 253-3824

대전시 (02) 756-8485

광주시 (062) 227-7561

대전시 (042